

---

# 최근 10년의 사파티스타운동: 도전과 저항의 역사<sup>1)</sup>

김윤경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

## 1. 들어가며

1994년 새해 벽두에 치아과스에서 일어난 사파티스타<sup>2)</sup>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멕시코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6년 이후 이 운동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고 동력도 많이 상실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내년이면 벌써 20주년을 맞이한다. 작년 12월 30일 사파티스타는 성명을 통해서 부활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지금까지 이룩한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투쟁과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 이 글은 김윤경(2008; 2011; 2012; 2013)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문에서 출처 제시는 생략하였다.

2) 정식 명칭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이지만 이 글에서는 일상적인 용법을 따라서 ‘사파티스타’라고 칭한다.

1996년 사파티스타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산 안드레스 협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멕시코 원주민 역사상 전례 없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이 협정에서 정부는 원주민의 자결권과 원주민 문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협정은 원주민의 참여, 원주민의 경제적 조건 개선, 원주민을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함을 통해 국가와 원주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원주민의 자치를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에 사파티스타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최소한의 협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협정마저 당시의 세디요 대통령은 수용하지 못했다. 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멕시코 정부와 사파티스타 혁명군은, 멕시코 상하의원으로 구성된 평화화해위원회(COCOPA)에 산 안드레스 협정을 반영하여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96년 11월에 일명 COCOPA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세디요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자치 조항이 원주민을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연자원을 원주민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의회에서 통과된 COCOPA법은 원안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으며, 원주민의 자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사파티스타가 이뤄놓은 성과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사파티스타는 그 후 몇 년간 “전략적인 침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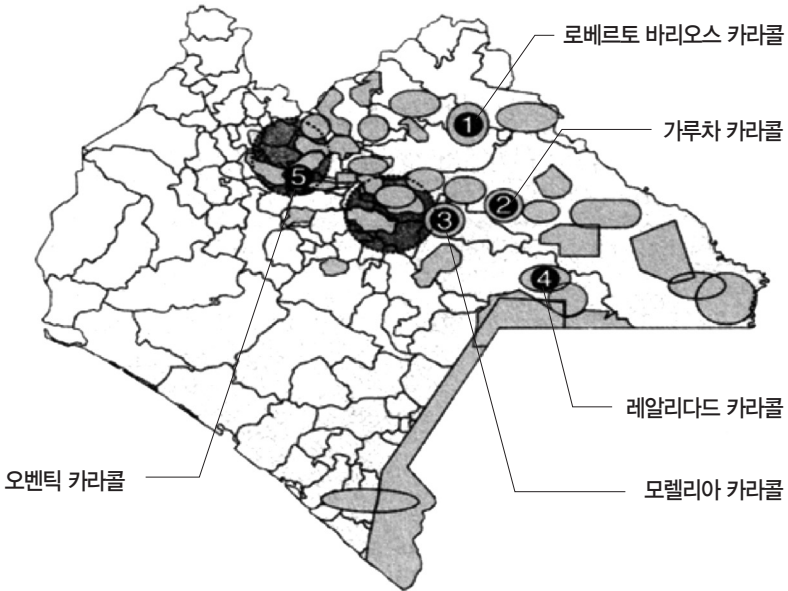
사파티스타가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난 것은 2003년이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방식을 완전히 포기했다. 산 안드레스 협정의 내용을 입법화하는 데 실패하자, 사파티스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의 어떠한 도움이나 간섭도 거부한 채 철저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파티스타는 정부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치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2003년은 사파티스타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중요한 해다.

그럼 이제 2003년 이후 오늘날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사파티스타운동 전개 과정을 개괄해보자 한다.

## 2. 2003년 사파티스타 지역의 자치 실현

| 도표1 |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의 5개 카리콜



자료 | Ross(2006)

## 1) 사파티스타 자치지역 재정비와 카라콜의 형성

2003년 8월 초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사파티스타는 체계적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지역(región autónoma zapatista)을 재정비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종래의 사파티스타의 모임 장소인 아구아스칼리엔테스<sup>3)</sup>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 실현을 위한 카라콜로<sup>4)</sup> 바꾼 것이다. 산 안드레스 협정에 실망하고 나아가 COCOPA법까지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사파티스타는 원주민의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것을 사파티스타 자치 지역 내에서 직접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선포된 카라콜은 5개다. 이러한 카라콜은 각 지역의 행정, 교육, 의료의 중심지로서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을 관리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카라콜의 명칭과 구성 원주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레알리다드 카라콜: 지역별로 토홀라발족, 첼탈족, 맘족 사파티스타
- ② 모델리아 카라콜: 첼탈족, 초칠족, 토홀라발족 사파티스타
- ③ 가루차 카라콜: 첼탈족 사파티스타
- ④ 로베르토 바리오스 카라콜: 출족, 소케족, 첼탈족 사파티스타
- ⑤ 오벤틱 카라콜: 초칠족과 첼탈족 사파티스타

3) 아구아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는 멕시코혁명이 한창이던 1914년 사파타, 판초 비야, 카란사 등 혁명군이 회의하던 도시다. 사파티스타는 이를 기념하여 모임 장소를 '아구아스칼리엔테스'라고 불렀다.

4) 카라콜(caracol)은 '달팽이'라는 뜻이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 땅에 처음 살던 사람들은 달팽이 형상을 존중하였다. [...] 달팽이는 심장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일러지혜라고 했다. [...] 또한 심장에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일러 삶이라고 불렀다"(Marcos 2003).



오벤틱 카라콜의 선정위원회 사무실

카라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선정(善政)위원회(Junta de Buen Gobierno)다. 사파티스타는 종래의 정부와 정치를 ‘나쁜 정부’, ‘나쁜 정치’로 규정짓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라콜에 ‘좋은 정부’, ‘좋은 정치’라는 의미의 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사파티스타는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지역의 전체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무니시피오<sup>5)</sup>를 관리한다. 선정위원회는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의 무니시피오에서 선출된 2~3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은 15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임기는 3년이다(Estrada Saavedra 2007, 539~541). 선정위원회 위

5) 멕시코는 행정상 주(estado)로 나누며, 각 주는 다시 무니시피오(municipio)로 나눈다. 멕시코에는 1개의 직할시(멕시코시티), 31개의 주, 2,445개의 무니시피오가 있다. 무니시피오의 면적이나 인구는 제각각이며, 치아파스 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23개의 무니시피오가 있다.

원은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한 달에 15일 정도 카라콜에 머물며, 이 기간에는 공동체가 위원의 가정을 돌봐주거나 토지 경작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선정위원회의 임무는 카라콜 내의 병원, 학교, 상점 등을 운영하는 일뿐 아니라, 무니시피오 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니시피오 간의 갈등이 자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주는 것 등이다. 그리고 무니시피오의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프로젝트나 공동체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사파티스타 자치지역 바깥의 일이나 활동에 사파티스타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무니시피오 생산조합의 잉여 생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니시피오에 나눠주는 일 등 경제적인 분배도 선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선정위원회는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의 중앙정부인 셈이다. 하지만 이 선정위원회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인 정부가 아니라 무니시피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연결해주는 수평적인 정부다.

이러한 선정위원회는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의 또 다른 통치 기구인 원주민비밀혁명위원회(CCRI: Comité Clandestino Revolucionario Indígena)의 감시를 받는다. 이것은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복종하면서 통치한다”(gobernar obedeciendo)라는 사파티스타의 원리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비밀혁명위원회는 사파티스타가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위원회에서 뽑힌 대표로 구성된다. 이 대표들은 공동체에서나 무니시피오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으며, 봉기 날짜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게릴라 운동을 이끈다. 원주민비밀혁명위원회의 총사령부는 레알리다드에 있으며, 70~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Barmeyer 2009, 92).

이러한 카라콜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무니시피오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자치 무니시피오의 통치 구조는 공동체 사람들로 구성된다. 무니시피오 자치위원회의 대표는 2년에 한 번씩 공동체 구성원이 선출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환할 수 있다. 무니시피오 자치위원회 위원도 무보수로 일하며, 위원회 일로 공동체를 떠나 있는 동안 공동체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밭(milpa)을 경작한다. 예를 들어 오벤틱 카라콜에 속해 있는 마그달레나 델 라 파스(Magdalena de la Paz) 무니시피오는 11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에서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무니시피오 위원회를 구성한다. 무니시피오 위원회는 무니시피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선출된 3~4명은 교대로 무니시피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 즉 상점 운영, 순찰, 경비, 마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카라콜과 무니시피오의 자치 활동에서 사파티스타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자치 프로젝트는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이 두 가지가 원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사파티스타는 생각했다. 사파티스타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의료와 교육 등에 관한 자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 2) 자치 프로젝트: 의료와 교육

먼저 의료 프로젝트를 보면, 1980년대 초부터 치아파스에서 이미 자치적인 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입하거나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을 모으는 수준이었다(Klein and Castro 2001). 원주민 공동체는 정부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원주민의 건강을 챙기려고 했다. 사실 멕시코 중앙정부는 원주민의 의료 서비스에는 무관심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파티스타가 붕기할 즈음인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치아파스 원주민 지역에서 의사는 주민 만 명당 네 명 정도였다(Barmeyer 2009, 160).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우선 사파티스타는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방약을 구비하고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5년 의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촌락에서의 의료지도사(promotor)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각 촌락에서 선출된 의료지도사는 의료 관련 학교나 워크숍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의료 관련 학교에서는 원주민이 대대로 사용하던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을 의료지도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전통적인 약초 지식을 원주민 공동체에 전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켈탈족이 사는 네 개의 무니시피오에는 400명이 넘는 의료지도사가 있다.

나아가 사파티스타는 카리콜과 무니시피오에 병원과 의학 관련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이러한 시설은 사파티스타를 지지하지 않는 원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예를 들어 토홀라발 밀림 지대의 경우, 사파티스타는 산 호세 델 리오에 병원과 의학 관련 학교를 세웠다. 이곳은 레알리다드에 속한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으로, 1994년 이후 사파티스타의 총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 1999년부터 이곳의 병원은 네 개의 무니시피오에 속해 있는 239개 공동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서도 원주민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문맹인 원주민을 위해서 병원 벽에 그림을 그려 기본 의학 상식을 알려줌으로써 원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자치 프로젝트는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사파티스타는 공동체 생활과 학교 교육을 통합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사파티스타는 종래의 정부 교육 프로그램이 원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자치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 종래의 정



부 학교와는 별도로 설립된 새로운 자치 학교는 사파티스타 공동체의 자치를 공고하게 다지는 지적 공간의 역할을 했다.

교육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커리큘럼의 내용이 원주민의 언어, 문화,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과학, 문화, 예술, 보건, 체육 등 이른바 서구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하지만 사파티스타 학교에서는 종래의 정부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원주민의 언어와 역사도 가르친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원주민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고취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사파티스타는 교육을 통해서 원주민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려는 것이다. 게다가 사파티스타는 게릴라 운동의 뿌리뿐만 아니라 통합이라는 주제로, 사파티스타 투쟁의 의미와 원주민운동의 역사와 의미에 관해서도 원주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문제는 원주민 학생을 가르칠 교사였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는 외부의 비원주민 출신 교사밖에 없었다. 사파티스타는 카라콜에 중등학교를 설립하여 외부 교사를 초빙하고 무니시피오 초등학교에 파견할 교사, 즉 교육지도사를 양성했다. 예를 들어 프란시스코 고메스 자치지역에서는 멕시코시 출신의 사파티스타 활동가가 원주민 교육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Barmeyer 2009, 166).

이처럼 사파티스타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카라콜에 기숙사를 설립했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카라콜에서 중등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은 무니시피오로 돌아가서 원주민 아동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오벤틱 카라콜의 중등학교를 보면, 14~19세의 학생은 3년간 공부를 마친 뒤에 무니시피오로 돌아가서 교육지도사가 되었다.

모렐리아 카라콜에 속한 알타미라노 지역의 자치 교육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데, 무니시피오로 귀향한 280명의 교사가 2,50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 3. 2005년의 ‘또 다른 캠페인’과 ‘새로운 정치’

2005년 사파티스타는 제6차 라칸돈 정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시도를 했다. 그것은 ‘또 다른 캠페인’(Otra Campaña)이라는 것이다. 제6차 선언문은 멕시코 정부에 대한 전쟁 선언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선언문과 다를 게 없지만 광범위한 좌파의 창출을 선언했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선언문과 차이가 있다. 사파티스타는 당시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선언의 목적은 멕시코인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종래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직한 것이 ‘또 다른 캠페인’이었다.

사파티스타는 ‘또 다른 캠페인’을 조직하려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와 시민이 이에 응했다. 직업이나 신분도 노동조합원, 원주민, 지식인, 예술가, 종교인,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게이, 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학생 등으로 다양했다. 조직 면에서도 노조, 비정부기구, 친목 집단, 초기 형태의 정당 등 천차만별이었으며 정치적 입장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다른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또 다른 캠페인’이라는 기치 아래 모이게 한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 특히 원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파티스타는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다. 사파티스타

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종래의 정치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캠페인’에 대한 멕시코인의 호응이 커지자, 2006년 1월 기존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일하게 가능한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캠페인’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은 채 선거와 무관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캠페인’의 활동을 기존 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파티스타의 ‘또 다른 캠페인’은 선거와는 무관한 운동이었다. 사파티스타는 이 운동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했다(Hernández Navarro 2006). ‘또 다른 캠페인’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기존 정치에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다. 사파티스타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권력을 부정했다. 정부와 의회라는 제도적인 틀 밖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사파티스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당한 대다수 민중을 새로운 정치 무대로 초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파티스타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다.

이후 ‘또 다른 캠페인’은 정치 조직보다는 투쟁 조직으로서 사파티스타운동에 대한 정부의 온갖 탄압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사파티스타의 충돌의 중심에도 ‘또 다른 캠페인’에 참여한 사파티스타가 있다.

#### 4. 2007년 이후 사파티스타운동: ‘어머니 땅’ 사수 투쟁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사파티스타의 투쟁은 주로 일방적인 정부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와 외국 자본의 일방적인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주민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면, 2010년 2월 6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의 사파티스타 원주민 마을 볼론 아하우(Bolon Ajaw 또는 Bolom Ajaw)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날 여기에서 사파티스타 원주민들과 ‘원주민과 농민의 권리 수호단체’(OPDDIC)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1월 20일부터 OPDDIC이 볼론 아하우에 난입하여 토지를 빼앗으려 하자, 마을 원주민 수백 명이 저항한 것이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날 충돌에서 OPDDIC은 사파티스타 원주민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파티스타 원주민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2011년 2월 3일에는 ‘또 다른 캠페인’ 소속의 사파티스타 116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체포된 사파티스타는 아구아 아술 인근의 바차혼 원주민들이었다. 이 사파티스타는 산 세바스티안 바차혼 에히도 주민들로서, 지난 2년 동안 아구아 아술에 있는 매표소를 관리했다. 이 매표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소득 원천이었다. 그런데 2월 2일 제도혁명당 지지자들이 경찰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매표소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버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1일 후 미치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느님의 군대’라는 민병대가 ‘또 다른 캠페인’ 소속 원주민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좀 더 거시적인 맥락을 보면, 2007년부터 정부가 치아파스 북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마약 유적지인 팔렌케를 포함한 라칸돈

밀립 지대를 개발하려는 ‘팔렌케 중점개발계획’(CIP Panlenque)에 주목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의 ‘새로운 여행 창구’인 ‘마야 세계로 가는 관문’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관광도시인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에서 팔렌케까지 치아파스를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치아파스 북부의 6개 무니시피오를 포함하고 있고, 비용만 해도 토지 매입에 4억 페소, 팔렌케와 아구아 아술을 잇는 통신망 건설에 1억 페소를 배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팔렌케 중점개발계획’이 멕시코와 중미를 잇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인 ‘푸에블라 파나마 계획’(PPP: Plan Puebla Panamá)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푸에블라 파나마 계획’은 외국 다국적 기업의 자본을 이용하여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을 건설함으로써 멕시코 남부의 여러 주를 중미 국가와 연결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와 기업은 해당 지역의 에너지와 석유와 농업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손을 잡고 추진하는 이 개발 프로젝트는 원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팔렌케 중점개발계획’과 ‘푸에블라 파나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원주민의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과<sup>6)</sup> 정부는 사파티스타운동이 여전히 치아파스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에 대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사파티스타 자치 조직이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저항의 근거지라고 보고, 이것을 파괴해야 개발에 필요한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에 관한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대표적인 그룹은 다음과 같다. Orient Express, Luxury Collection, Aman group.

그리하여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아하우뿐 아니라 몬테스 아슬레스, 산 크리스토팔 인근에 있는 미치툰, 세바스티안 바차혼, 치코무셀로 같은 사파티스타 원주민 마을에서 국가와 민병대와 대기업이 또다시 ‘어머니 땅’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관광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사파티스타 공동체의 토지를 공격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파티스타의 근거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개발과 원주민에 대한 탄압에 대해 사파티스타 원주민은 ‘토지’와 ‘자치’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사파티스타는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를 영토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지가 바로 사파티스타의 자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파티스타 원주민의 저항은 단순한 이권 싸움이 아니라, 빼앗긴 토지를 되찾는 과정의 일환이자 자치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파티스타 원주민의 ‘어머니 땅’ 사수 투쟁은 단순히 토지를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다. 과거 500년 동안의 식민지적 삶을 거부하고 원주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그만큼 원주민은 절박하다. 멕시코 정부와 주정부는 대기업과 민병대와 손을 잡고 돈과 폭력으로 맹공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캠페인’ 운동의 지지 세력의 결집과 국제적인 시민단체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5.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2년 12월 21일 수천 명의 사파티스타가 치아파스의 오코신고와 산 크리스토타발 데 라스 카사스 등 몇 개 도시에서 침묵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은 2011년 5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sup>7)</sup> 이 행진에서 사파티스타는 지도자 없이 조용히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서 사파티스타운동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노동, 토지, 의료 서비스, 원주민 권리의 법적 인정 등을 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사파티스타운동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다.

사실 사파티스타는 2006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예전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크게 끌지 못했다. 2003년 이후 사파티스타는 산 안드레스 협정이 무효화되자 본격적으로 자치를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사파티스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 또한 여타 라틴아메리카 나라의 사회운동을 자극하였는데, 특히 원주민운동이 발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5년~2006년에 ‘또 다른 캠페인’을 조직하여 멕시코 전역을 순회할 때까지만 해도 사파티스타는 멕시코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캠페인’은 종래의 정치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파티스타운동으로 조직화해냄으로써 기성 정치 세력에게 큰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2007년 ‘팔렌케 중점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정부의 치아파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파티스타의 투쟁은 치아파스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게 되면서 예전의 동력을 많이

7) 이날 사파티스타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마약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인 하비에르 시실리아가 이끄는 ‘평화, 정의, 존엄을 위한 운동’ 단체 사람들과 함께 3만 명 이상이 산 크리스토타발 데 라스 카사스 시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상실한 듯했다. 물론 사파티스타는 ‘또 다른 캠페인’을 통해서 ‘농민의 길’ 같은 국제연대 조직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멕시코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도 한몫했다. 그러는 가운데 사파티스타운동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심지어는 이제 사파티스타운동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파티스타의 침묵시위는 규모 면에서만 아니라 시기 면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파티스타는 이날 성명서에서 ‘세상이 몰락해가는 소리, 사파티스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파티스타는 침묵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고, 성명서를 통해서 사파티스타운동이 죽지 않았음을 세상에 공포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12년 12월 30일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과 정부에게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성명서, ‘사파티스타 혁명군이 새로운 단계를 선언하다’를 발표했다(EZLN 2012). 그것은 ‘포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항과 투쟁의 메시지’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파티스타가 이제 다시 저항의 고삐를 죄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파티스타가 사라지지 않고 엄연히 살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파티스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파티스타는 그동안 스스로를 강화했고, 생활 조건도 상당히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정부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 수준보다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교육 면에서도 사파티스타 공동체의 아이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원주민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의 여성은 지위와 역할 면에서



비교적 남성과 동등하며, 성매매 당하는 일은 없다. 이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대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 즉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자치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사파티스타는 2003년부터 사파티스타 자치지역 내에 5개의 카라콜을 형성하여 자치를 실행했다. 카라콜마다 선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참여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치를 시행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원주민의 역사 인식과 건강,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벌였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원주민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원주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의료 프로그램에서는 병원과 약국의 설립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원주민의 의료 문제를 최저 수준에서나마 개선하려고 했다. 원주민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공예품, 커피, 콩 등을 경작하여 그 수익금을 사파티스타 공동체들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파티스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 여섯 가지를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멕시코의 기성 정당을 포함하여 현 정부를 나쁜 정부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다섯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앞으로 사파티스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원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인 원주민국회(CNI) 내에서 사파티스타의 입지를 강화할 것, 둘째는 멕시코와 전 세계에서 사파티스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재개할 것, 셋째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회운동에 대해 가고 역할을 할 것, 넷째는 멕시코 정치계급에 대해서 계속 거리를 두고 비판할 것, 여섯째는 멕시코인과 전 세계인과 더불어 주도권을 가지고 멕시코의 다른 원주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파티스타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는 사파티스타가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원주민의 존

엄성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과거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다만 이 성명서에서는 특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사파티스타운동이 도약하려면 사파티스타를 지지하는 멕시코인 및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파티스타운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사파티스타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994년 이래 10여 년 동안 사파티스타는 자치구역을 선포하여 종래의 체제와는 아주 다른 자치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굳건히 유지했다. 그러는 가운데 사파티스타는 작년 12월 30일 성명서를 통해서 부활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파티스타운동이 부활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의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경. 2008.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운동: 새로운 세계를 향한 원주민 운동」, 『서양사론』 97: 85~115.
- 김윤경. 2011.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사파티스타들의 갈등」, 『트랜스라틴』 15: 12~15.
- 김윤경. 2012.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사파티스타」, 『트랜스라틴』 22: 15~18.
- 김윤경. 2013.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1): 133~171.
- Barmeyer, Niels. 2009. *Developing Zapatista Autonomy: Conflict and NGO Involvement in Rebel Chiapa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 Estrada Saavedra, Marco. 2007. *La Cominidad Armada Rebelde y el EZLN: Un Estudio Histórico y Sociológico osbre las Bases de Apoyo Zapatistas en las Cañadas Tojolabales de la Selva Lacandona(1930-2005)*.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Centro de Estudios Sociológicos.
- EZLN. 2012. “El EZLN anuncia sus pasos siguientes.” Comunicado del 30 de diciembre.  
<http://enlacezapatista.ezln.org.mx/2012/12/30/el-ezln-anuncia-sus-pasos-siguientes-comunicado-del-30-de-diciembre-del-2012/>
- Hernández Navarro, Luis. 2006. “La sexta declaración y la otra campaña, el romper de la ola.” *La Jornada*, 3 de abril.
- Klein, Hilary and Gustavo Castro. 2001. “La Salud y la Autonomía Indígena,”  
<http://www.ciepac.org/boletines/chiapasaldia.php?id=228>
- Marcos. 2003. “Chiapas, la treceava estela: un caracol.” *La Jornada*, 24 de julio.  
<http://www.jornada.unam.mx/2003/07/24/015n1pol.php?origen=index.html&fly=2>
- Ross, John. 2006. *Zapatistas!: Making Another World Possible Chronicles of Resistance 2000~2006*. New York: Nation Books.